Ⅱ. 보험회사 경영리스크의 중요성과 특성

1. 보험회사 경영리스크의 중요성[1)]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내 보험회사와 외국은행의 경우 경영리스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생보사와 손보사 각각 전체리스크 중에서 경영리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와 33.4%라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외국의 리스크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미국 보험회사들의 주요 파산원인들 중에 경영리스크와 관련된 것을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경영리스크의 중요성을 추론할 수 있다. 먼저 1976 1991년까지 16년 동안 파산한 290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조사 연구한 1992년 A. M. Best사의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그 원인이 확인된 207개사(71.4%)의 주요한 파산원인은 <표 Ⅱ-1>과 같다. 나머지 83개사는 불완전한 정보 또는 관련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파산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과거 16년 동안 생명보험회사 파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① 부적절한 보험가격과 잉여금, ② 급속한 성장, ③ 계열회사 문제, ④ 자산의 과대표시, ⑤ 사기사건, ⑥ 사업의 급속한 변동, ⑦ 재보험의 실패, ⑧ 대재난 손해, ⑨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파산원인을 다시 경영리스크와 비경영리스크로 재분류하여 볼 수 있다. 즉 경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실패한 내부절차(Process)와 직원(People) 및 시스템(System) 또는 외부사건(External Event)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리스크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를 위의 파산원인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② '급속한 성장'은 경영자의 투자마인드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결국 사람(People)에 의해 결정되고 실행되는 것

---

1) 이재복,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 능력 규제," 보험개발원, 1997. 3, pp. 83-87.

이다. 그러므로 급속한 성장은 사람과 관련된 리스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Ⅱ-1> 미국 생명보험회사 파산의 주요 원인

파산원인	파산회사수(개사)	구성비율(%)
① 부적절한 보험가격/ 잉여금	47	22.7
② 급속한 성장	41	19.8
③ 계열회사 문제	40	19.3
④ 자산의 과대표시	37	17.9
⑤ 사기사건	16	7.7
⑥ 사업의 급속한 변동	15	7.2
⑦ 재보험의 실패	5	2.4
⑧ 대재난 손해	-	-
⑨ 기타	6	2.9
원인확인된 파산회사 합계	207	100.0
원인불명 파산회사 합계	83	
전체 파산회사 합계	290	

자료: *A. M. Best Company, "Best's Insolvency Study: Life/Health Insurers," 1976-1991.*

다음으로 ④ '자산의 과대표시'는 회계오류나 회계부정의 경우로 이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 실패로 일어나는 과정(Process)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⑤ '사기사건'은 주로 내부의 직원들의 사기, 횡령 등외에도 외부 제3자에 의한 고의적인 사기 등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사기사건은 사람(People)과 외부사건(Extenal Event)에 의해 발생하는 경영리스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⑥ '사업의 급속한 변동'은 보험회사내의 원인이 아니라 주로 보험회사외부의 사건(External Event)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⑧ '대재난 손해' 역시 보험회사내부의 역량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사건(External Event)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상의 요인들을 모두 경영리스크에 포함시켜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② 급속한 성장(People), ④ 자산의 과대표시(Process), ⑤ 사기사건(People & Extenal Event), ⑥ 사업의 급속한 변동(External Event), ⑧ 대재난 손해(External Event)으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표 Ⅱ-2>에 따르면 광의의 경영리스크 관련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원인을 살펴보면, 광의의 경영리스크로 인한 파산회사 수는 109개사로 그 비중은 52.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협의의 경영리스크를 '자산의 과대표시', '사기사건'으로만 국한시킨다면 협의의 경영리스크로 인한 파산회사 수는 53개사로 그 비중은 25.6%로 광의의 경영리스크로 인한 파산기업 수의 절반에 해당한다.

<표 Ⅱ-2> 경영리스크 관련 미국 생명보험회사 파산의 주요 원인

파산원인	파산회사수(개사)	구성비율(%)
② 급속한 성장(People)	41	19.8
④ 자산의 과대표시(Process)	37	17.9
⑤ 사기사건(People, External Event)	16	7.7
⑥ 사업의 급속한 변동(External)	15	7.2
⑧ 대재난 손해(External)	-	-
광의의 경영리스크 관련 합계	109	52.6
① 부적절한 보험가격/ 잉여금	47	22.7
③ 계열회사 문제	40	19.3
⑦ 재보험의 실패	5	2.4
⑨ 기타	6	2.9
비경영리스크 합계	98	47.4
원인확인된 파산회사 합계	207	100.0
원인불명 파산회사 합계	83	
전체 파산회사 합계	290	

자료: *A. M. Best Company, "Best's Insolvency Study: Life/Health Insurers," 1976-1991.*

다음은 미국의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경영리스크를 발생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② 급속한 성장(People), ③ 사기사건(People & External Event), ⑤ 대재난 손해(External Event), ⑥ 자산의 과대표시(Process), ⑧ 사업의 급속한 변동(External Event) 순으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표 Ⅱ-3>에 따르면 광의의 경영리스크 관련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파산 원인을 살펴보면, 광의의 경영리스크로 인한 파산회사 수는 144개

사로 그 비중은 49.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순순한 협의의 경영리스크를 '사기사건', '자산의 과대표시'로만 국한시킨다면 협의의 경영리스크로 인한 파산회사 수는 60개사로 그 비중은 20.7%로 광의의 경영리스크로 인한 파산기업 수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처럼 광의 또는 협의의 경영리스크가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파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경영리스크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리스크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표 Ⅱ-3> 경영리스크 관련 미국 손해보험회사 파산의 주요 원인

파산원인	파산회사수(개사)	구성비율(%)
② 급속한 성장(People)	42	14.5
③ 사기사건(People, External Event)	38	13.1
⑤ 대재난 손해(External)	25	8.6
⑥ 자산의 과대표시(Process)	22	7.6
⑧ 사업의 급속한 변동(External)	17	5.9
광의의 경영리스크 관련 합계	144	49.7
① 부적절한 보험가격/ 준비금부족	86	29.7
④ 기타	25	8.6
⑦ 재보험의 실패	19	6.6
⑨ 계열회사의 재정 악화	16	5.5
비경영리스크 합계	146	50.4
원인확인된 파산회사 합계	290	100.0
원인불명 파산회사 합계	114	
전체 파산회사 합계	404	

자료: *A. M. Best Company, "Special Report: Solvency Study of the Excess & Surplus Lines Industry," 1995. 9.*

2. 보험회사 경영리스크의 특성

가. 은행과 보험산업의 경영리스크 특성

2003년 8월부터 우리나라에도 방카슈랑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

라, 은행산업과 보험산업간 업무영역의 중복으로 인해 경영리스크의 발생 및 특성도 점차 유사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는 외국과는 달리 은행산업만이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은행과 보험산업간의 급속한 업무중복 및 경영리스크의 발생 및 특성의 수렴화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은행과 보험산업의 동시 진출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영리스크의 발생 및 특성도 점차 수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이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본 연구도 은행산업의 경영리스크 관리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국내보험산업이 이를 원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1) 은행과 보험산업 경영리스크의 차이점

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많은 비재무적리스크인 경영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예상치 못한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은행의 경우 고객들과의 수많은 거래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리스크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즉 은행권의 경우 경영리스크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반면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는 주로 대규모 자연재해나 인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지급의 위험, 그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들은 각 보험상품에 대한 요율을 산출할 때 이미 고려하게 되는 고유의 보험리스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는 이러한 고유의 보험리스크를 포함한 재무적리스크 발생정도의 예측이 빗나간 경우이거나, 보험리스크의 발생 등으로 발생하는 자사의 시설 또는 자산피해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재, 홍수, 그리고 대규모의 지진 또는 태풍 등은 1년 동안의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수익을 한 순간에 일소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리스크들은 전통적인 보험리스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리스크들은 이사회나 최고경영층 관련 경영리스크(board or senior management risk) 등과 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사회 또는 최고경영층 관련 경영리스크는 정책의 적용실패 및 잘못된 비전의 제시, 그리고 내부통제시스템의 관리부실 등을 포함한다.

2) 은행과 보험산업 경영리스크의 유사점

그리고 은행과 보험회사가 경영리스크에 직면할 때 여러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금융산업이라는 측면에서의 공통점, 건전한 경영을 통해 경영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반면, 부실경영은 오히려 경영리스크를 확대한다는 점, 그리고 위험전가 수단을 통해 경영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등이다. 이처럼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경영리스크에 대해 공통적인 요인을 갖게 된 이유는 규제완화, 국제화 등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방카슈랑스 등으로 인한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합병 때문이다. 방카슈랑스로 인한 금융기관간 합병은 오랜 기간 동안 경영리스크의 발생에 있어 공통점을 가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례는 Citibank와 Travelers Insurance사의 합병과 영국의 가장 큰 생명보험회사인 Prudential사의 소매금융 서비스의 제공 등이 있는데 특히 방카슈랑스의 진행으로 인한 합병은 더욱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Credit Suisse와 Winterthur Insurance와의 합병도 그렇다. 그리고 NatWest는 광범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Legal & General(L&G) 그룹의 생명보험과 연금보험부문을 175.5억 파운드(미화 172억 달러)에 매입하여 보험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매수, 합병의 추세는 지속되어 1998년 7월에 Lloyd's TSB는 Scottish Widows의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부문을 70억 파운드에 매수하였다. NatWest가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된 원인은 Scotland의

Royal Bank에 의한 적대적 매수에 대항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화는 그 자체에 대해 경영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매수 및 합병대가의 과다지급을 발생시키는 매수 및 합병 그 자체가 현금흐름에 큰 부담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스크 역시 신용리스크 또는 시장리스크가 아니라 경영리스크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전략의 결정과정에서 최고경영층의 의사결정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나. 보험회사의 소매금융 진출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외국 방카슈랑스의 경우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외국의 사례를 통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Prudential사는 1996년 10월 1일에 은행업에 진출하여 은행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또 다른 사례는 같은 목적으로 은행업에 진출한 Standard Life사이다. 이들 보험회사들은 소매금융의 진출로 소비자의 저축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처음의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소매금융 그 자체의 진출 외에도 다른 목적을 두게 되었다. 소매고객층들은 기업, 슈퍼마켓, 신용카드회사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금융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기반을 둠에 따라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졌다. 이러한 소매금융 관련 고객층의 주요 활동분야에서 나타난 것은 비용 효율적인 채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방카슈랑스를 통한 소매금융의 진출에 따른 소매금융 관련 온라인 판매채널의 확보로 인해 보험회사들의 비용은 절감되었으며 결제의 단순성, 그리고 투명성 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채널이 확대됨에 따

라 특히 온라인 관련 경영리스크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대리점과 전문적인 시스템 등을 사용할 경우 서비스의 질과 거래의 단순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영리스크 관련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첫째, 어떠한 은행과 보험회사들도 경영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대규모 보험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 역시 여전히 낡은 것이라는 점이다.

다. 문화 및 인프라의 차이

경영리스크의 또 다른 원인은 방카슈랑스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영국의 보험산업은 보험상품과 판매채널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성숙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매금융과 생명보험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보험회사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소매금융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인프라의 중요성 때문에 기존의 은행들과는 경쟁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대로 은행이 보험회사를 매수할 경우, 비록 인프라의 차이에서는 전반적으로 크게 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행에서도 여전히 또 다른 약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Lloyd's TSB사는 많은 고객을 갖고 있는 전국 네트워크의 지점망을 이용하여 상품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88년에 Abbey Life의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부문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Abbey Life는 상품판매에 실패했으며, 연금을 잘못 판매함으로써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경영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Lloyd's TSB는 Scottish Widows로부터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부문의 시장전문가를 다시 초빙해야 했다. 이러한 사례는 대규모 은행이 one-stop 방카슈랑스로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중요한 변화이며, 또한 그들의 전략적인 계획의 수행에서 나타나는 경영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보험회사들은 그들만의 전통적인 경영리스크를 보다 더 잘 통제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 역시 경영리스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경영리스크로부터 발생되는 여러가지 나쁜 선입견들은 금융기관의 재무적, 평판적인 면에서 비용구조를 보다 고비용 구조로 만든다. 예를 들어 1999년 8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생명보험회사인 MetLife사는 보험계약의 불평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보험계약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17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 다만 MetLife사 소송의 결과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의 대규모 보험회사의 보험판매관행에서부터 비롯되는 잘못된 생명보험 및 금융재보험인수에 대한 법적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즉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들이 투자자들과 보험계약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고발당한 것이다. 특히 MetLife사를 고발한 주요 이유의 하나는 그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소위 '보험료를 증발시키는(vanishing premium)' 계약으로 고객들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MetLife사의 소송에서 나타나는 그 투자수익은 1980년대 초반에 유행한 높은 이자율에 근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자율이 하락하자 그러한 계약들은 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였지만, 반대로 사망급부는 더욱 더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의 가격결정 실패는 일종의 옵션가격결정의 실패에 해당하며, 또한 이러한 이자율적용의 실패와 같은 리스크관리 실패는 결국 경영리스크 관리 실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경영리스크의 영역

1) 타 리스크와 경영리스크

전세계적인 보험산업의 구조변화 및 상품의 변화는 보험산업의 경쟁

적 환경을 보다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리스크의 해결방안은 크게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4차원의 리스크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의 4차원리스크란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그리고 경영리스크를 나타낸다. 이러한 4가지 차원의 리스크가 작으면 작을수록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증가된다.

그리고 방카슈랑스의 출현만이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을 이끈 유일한 단서가 되지는 못하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이 진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WTO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자유화로 인해 해외경쟁이 보다 심화되었으며, ② 많은 보험회사들의 지속적인 손익악화로 인한 자본의 재구성이 보다 필요하게 되었으며, ③ 시장압력과 정부의 지도 등에 대항하기 위한 결합형태로 진전하고, ④ 규제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보험회사들이 지급여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전했다는 점등이다.

보험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비용 효율적인 사업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또한 총비용의 통제 및 보험계약의 인수, 보험상품의 판매 등에 있어서 새로운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쟁의 증가 및 규제의 자유화라는 보험환경은 과거와 같은 영업실패의 반복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다른 금융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영리스크의 측정과 관리가 자본충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은행 및 보험시장의 급속한 수렴현상으로 인해 더욱 빨리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가 은행에 비해 통합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복잡한 이유중의 하나는 재무적리스크에 해당하는 자산리스크와 비재무적리스크에 해당하는 경영리스크가 각각 서로 다른 툴(tool)을 사용하는 분리된 부서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재무적리스크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비재무적리스크에 해당하는 경영리스크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보다 그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회사들은 특별한 위험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판매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얻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자본의 충실을 기한다. 그러나 그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를 수년에 걸쳐 수반하게 된다. 이것은 보험회사들이 재보험계약 등을 통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자산 및 재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신용리스크를,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보험리스크를, 그리고 이상의 재무적리스크의 예측 및 관리 실패에 대해서는 경영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리스크의 범위는 상대방과의 거래는 물론 보험상품과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에서도 발생하게 된다.

2) 경영리스크의 최소화

또한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업전체를 포괄하는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경영리스크의 선택,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행위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기타 다른 리스크노출 등을 포함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성공적인 보험계약인수를 위해서는 리스크의 분산, 지속적인 모니터링, 광범위한 재보험계약 등으로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보험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는 영업라인도 자연재해 등 대재난 등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최고경영층은 과거자료를 토대로 대재난 관련 리스크를 분석함으로써 자연재해 또는 인재로 입을 수 있는 최대손실을 예측하여야 한다. 풍부한 손실자료의 구축은 이러한 예측을 하는데 보다 용이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러한 손실자료의 구축은 ① 보험계약 인수에 있어서 최고경영층에게 리스크선택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② 재보험시장에서 대재난에 대비한 재보험구매를 하는데 도움을 주며, 마지막으로 ③ 은행과 같은 다른 영업라인에서의 리스크분산을 위한 지침

을 제공해 준다.

순수보험리스크 중 손실관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재보험이다. 그러나 재보험 역시 상대 재보험회사의 파산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하며, 재보험의 경우 정확한 재보험료의 산출이 필요하다. 한편 생명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의 인수와 관련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보험사망률, 재해사망률, 생존율, 그리고 기타 요인들에 대한 예측이 어긋날 경우 보험계약 인수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리스크감소를 위해서는 역시 세밀한 상품디자인 및 상품포트폴리오의 선택, 그리고 사망률 추정을 위한 통계적 기법들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 이러한 상품포트폴리오의 선택, 상품설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집적의 실패는 바로 경영리스크에 해당한다.

마. 규제리스크와 경영리스크

보험회사의 경쟁력은 위험보장의 대가를 미리 현금으로 얼마나 많이 선취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산업 등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규제를 많이 받는 업종이다. 유럽 보험산업의 경우, 각종 자산운용은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한 선관주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규제의 하나인 지급여력만을 통제, 감독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독을 위한 부차적인 규제들을 폐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997년까지만 해도 유럽각국의 통상적인 보험업무 관행인 선 인가주의 의무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보험가격과 상품조건 등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동의만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지급여력통제만으로 보험가격과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 보험감독에 대한 최소한의 표준만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준은 상품의 종류, 자산의 범위, 그리고 기술적인 영역 등의 계산을 포함한다.

그리고 보험산업에서 감독규제의 완화와 외국보험기관에 대한 시장

의 개방은 보험산업의 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험상품가격 및 리스크의 계산방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에는 규제완화와 개방 등으로 인해 어떠한 일이 전개될 것인지 추측이 난무할 것이며, 이러한 모호성은 규제완화 및 개방을 지속시키는 것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리스크를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종류, 어느 정도의 조정이 일어날 것인가는 주로 시장참여자들의 반응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은 오히려 경영리스크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국내 및 외국보험회사들에 대한 진입장벽의 완전제거는 시장자유화의 기회를 누리기를 원하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장 참가자의 출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회에의 도전은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그리고 경영리스크 등이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는 것과 같다.

은행업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은행업은 이미 상당규모로 규제의 완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은행업의 경우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에서의 국제적인 규제가 이루어질지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규제는 앞으로 보험산업이 지향해야할 방향인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보험산업은 州정부단위로 규제가 세분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규제가 통일되어 연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규제완화를 위한 압력은 보험산업의 규제를 통일시키게 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미국의 보험감독은 50개의 州정부에 의해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보험산업은 금융산업전반에서 시행되었던 규제완화의 시기를 놓쳐버렸다. 이러한 원인은 다른 원인들과 겹치면서 현재의 州단위 규제는 자본기준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지속시켰으며, 또한 손해보험에 대해서도 기존규제의 능력을 과장함으로써 결국 규제의 지속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의 지속은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으며, 특히 그러한 규제는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온라인 등 신기술 관련 영업의 확대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州단위의 규제 때문에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50개 州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규제들은 보험회사들이 심각한 경영리스크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보험산업에서의 전반적인 추세는 과거 상업은행들과 연관시켜 오랜 기간동안 규제를 받아오던 보험회사들이 점진적으로 자유화,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